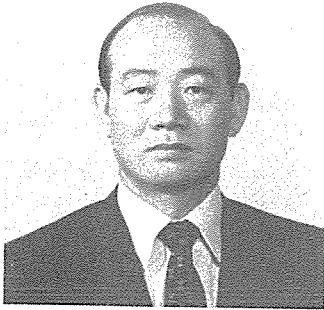


## 科学技術의 重要性증대 全大統領, 高級技術人力養成力点



(全斗煥大統領)

全斗煥대통령은 『政府는 国民精神教育의 강화, 科学技術教育의 振興, 平生教育体制의 확립등 教育政策의 3대 기본 방향 아래 多角的인 施策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全斗煥대통령은 12일 「81년도 國政에 관한 大統領演說」에서 이

### 閱회장, 구랍29일 귀국 在美科協활동 격려

閱寬植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2개월여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구랍29일 귀국했다.

閱회장은 지난 10월초 出國, 美·日등지를 순방하면서 科学技術界人士들과 만나 국제간의 최신 과학기술교류 및 상호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在美科協임원을 초청,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이날 귀국했다.

같이 밝히고 『科学技術의 重要性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時代的 추세』라고 전제, 『政府는 과학기술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고도산업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高級技術人力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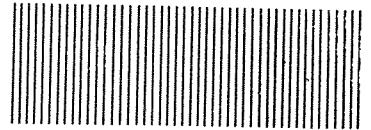
### 近代以後 科学技術者 編輯委. 表紙人物論議

韓國科学技術団体總聯合會는 15일 과총회의실에서 81년도 제

1차 科学과 技術誌 편집위원회를 개최, 81년도 表紙人物 선정에 따른 제반문제를 논의했다.

申応均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表紙面報는 近代以後人物의 초상화나 사진으로 하되 1월호는 池錫永(医学·1855~1935), 2월호 禹長春(育種·1888~1959), 3월호에는 李源喆(天文·1896~1962)씨 順으로 게재키로 했으며 추가명단은 차기편집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그리고 表紙人物에 대한 설명은 本文 1페이지에 실기로 했다.



## 第16回 定總日程 확정 科總, 20日 會長團會議 개최

韓國科学技術団体總聯合會는 1월10일 科總會議室에서 1981년도 제1차 會長團會議를 開催, 8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81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閱寬植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또 80년도 최종이사회를 1월20일 남서울호텔에서 열기로 하고 제16차 정기총회는 1월27일 15시 과학기술회관 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李泰圭고문을 名譽會長으로, 前 과학기술처장관 成佐慶박사를 고

문으로 추대키로 하는 한편 회원단체의 年會費인상 및 회원단체 入會費조정은 일체하지 않기로 했다.

### 第8次 綜合學術大會 4月6日 開催결정

韓國科学技術団体總聯合會는 10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在歐科聯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제8차 國內外韓國科学技術者綜合學術大會를 오는 4월6일 韓國科学技術院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이날회의는 또 세부사업계획은 동학술대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

# “事業領域과 學術支援 擴大”

## 제16회 科總定期總會 開催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第16회 定期總會가 1월27일(화) 오후 3시 科總講堂에서 열린다.

閔寬植會長, 李應善科技處次官을 비롯한 科學技術界人士, 代議員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되는 이날 총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科學技術人 信條 낭독, 閔會長의 開會辭, 李正五 科技處長官(李應善次官代讀)의 격려사, 유공자에 대한 施賞, 成員報告, 제15회 정기총회의록집수와 議案審議가 있게 된다. 閔會長은 개회사에서 「3年前 會長에 취임할때만해도 보잘것 없었던 科總이 그동안 科學技術人의 사회적 인식제고와 연구활동 지원등에 많은 진전을 보였다」고 말하고 「올해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비롯해 각종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창조생개발세미나, 人名辭典 편찬 등 새로운 사업도 전개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인의 연합체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작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과 5억여원에 달하는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을 예정인데 표창자는 다음과 같다.

▲功勞牌=金東一(科總常任顧問)

▲感謝牌=朴益洙(科學史學會長)·朴漢圭(延世大教授)·李佳鍾(國民大教授)·邊熙男(서울市婦女課長)·李禹世(서울신문編輯局長)·崔靖民(中央日報科學部長)·李龍水(東亞日報記者)·尹鉉在(週刊 새마을取材部長)

▲表彰狀=吳相鎔(電子工學會事務局長)·慎鏞聲(鎭山學會事務局長)·陳東臣(電氣學會事務局長)·金正會(科總振興部)·李在永(科總管理部)·徐明姬(科總總務部).

### 새마을 技術奉仕團連席會議

새마을 技術奉仕團中央會 中央分科委員長, 道團事務局長, 幹事連席會議가 26명의 위원장, 국장,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2

일(목) 科總會議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申應均 科總부회장의 인사에 이어 작년도 사업실적보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운영지침시달이 있었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科總 부설기관인 同奉仕團은 지난 한해 1,048명의 지도원이 2,823회, 3,248건의 기술지도를 실시했고 매스컴을 통해 900여회, 書信을 통해 400여회 기술지도도 실시했다.



## 80년도 사업실적결산 승인 科總理事會, 81년사업계획 및 예산도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1월20일 10시30분 남서울호텔회의실에서 80년도 最終理事會를 개최, 80년도 事業実績 및 歲入歲出決算을 승인하는 한편 81년도 事業計劃 및 歲入歲出予算(案)을 심의, 무수정 통과시켰다.

閔寬植이사장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또 會員團體 新規加入 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韓國船舶機關學會(회장 金周年), 韓國環境性突然變異, 發癌原學會(“尹鐸求), 韓國環境衛生學會(“鄭文植), 大韓알레르기學會(“康晰榮), 韓國人口學會(“金正根), 韓國動力·資源연구소(소장 玄炳九)의 新規加入을 승인하고

제16회 定期總會 개최 및 表彰대상자(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閔寬植이사장은 이날 인사를 통해 「우리 聯合會는 여러분의 성원과 회원단체의 協調, 그리고 事務處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向上을 가져왔으며 面貌도一新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에는 지난해의 經驗을 살려 國家施策에 바탕을 둔 기본사업과 계속사업을 質과 量的인 면에서 보다 발전시킬 계획이며 新規事業으로 創造·開發·革新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인명사전 편찬, 「科學大衆化」캠페인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81科学技术賞施賞要領公告

## 2月28日까지 科總서 書類접수

科学技术處는 81년도 大韓民國 科学技术賞 施賞計劃 및 授賞후보자 추천요령을 확정, 공고했다.

科技處가 제14회 과학의 날 (1981년 4월21일)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창달과 진흥에 현저하게 공헌한자에게 수여하는 이 과학기술상은 科学賞, 技術賞, 技能賞, 科学技术奉仕賞 등 본賞(대통령상·각 상금 200만원, 단 봉사상은 100만원)과 振興賞(科技處長官賞)으로 구분되는데 본賞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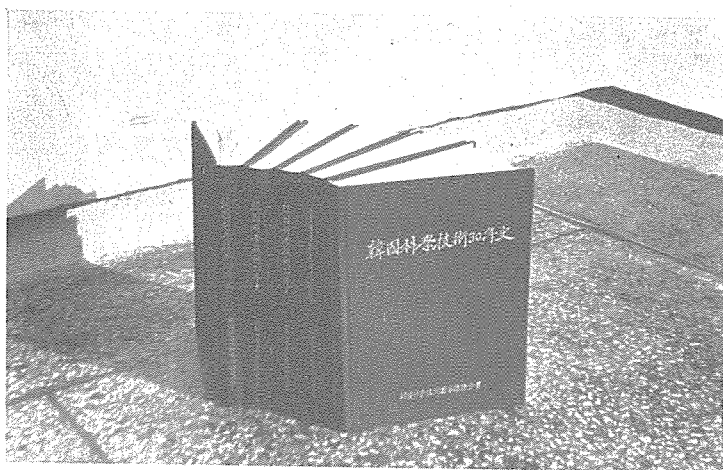
상으로 대체하게 된다.

科学賞은 大韓民國 국민으로서 創意的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되며 技術賞은 혁신적인 産業技術活動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 技能賞은 多年間의 꾸준한 기능의 연마로 뛰어난 기

능을 갖추고 우리나라 생산기술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게, 그리고 科学技术奉仕賞은 새마을 기술지도, 과학기술 계몽·보급 등 과학화사업 추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게 된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소정양식의 추천서 2부와 함께 소속기관장 동의서, 이력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각 2부 그리고 공적에 따른 증빙자료 (1부), 명함판 사진 (3매), 시 읍 면장 발행 신원증명서 (1통) 등의 서류를 오는 2월28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산 76-56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 제출하면 된다.

## “韓國科学技术30年史” 科總, 1千部發刊배포



韓國科学技术團體總聯合會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獨立된 綜合科学技术史인 「韓國科学技术30年史」를 발간했다.

이 科学技术30年史는 開化期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읽을수 있도록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한 것으로서 4×6 배판 428면에 画

報, 本文과 附錄으로 綜合年表를 수록했다.

本文에서는 크게 서장 「開化에서 光復까지」 제1편 「建國과 再建」, 제2편 「發展과 跳躍」으로 나누어 서장 「開化에서 光復까지」에서는 開化期의 科学教育, 受難期의 科学教育和 大衆化를 다루었으며 제1편 「建國과 再建」에서는 政治·經濟的 背景, 科学技术

政策 및 國際交流, 과학교육, 과학기술의 成果, 과학기술의 大衆化를 제2편 「發展과 跳躍」 편에서는 정치·경제적 배경,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교육 및 인력개발, 국제기술협력, 과학기술 성과 및 대중화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 30년 사의 편찬사업은 과학기술의 발자취와 과학기술인의 활약상이 담긴 史料를 종합 정리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正統史를 정립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여론에 따라 광복30주년을 맞은 70년대 후반부터 관심사가 되어왔으나 예산의 장벽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79년 소요예산을 확보함으로써 4월부터 본격적으로 편찬사업에 착수, 14개월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科總은 정부각처 및 주요기관,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과 과총회 1단체, 그리고 이 사업에 협조한 협찬기관에 무료로 배포한다.

# 物理学 普及 확대 物理学会, '81事業확정

韓國物理学会(회장 李相洙)는 금년도 사업으로 학술연구발표의 진작과 물리학의 보급확대, 물리학에 관한 학술활동 전개, 국제 교류확대, 물리학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산업협동사업과 학술용역개발등을 실시키로 하고 각종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物理學의 보급을 위해 초·중·고·대학에서의 物理學教育을 내용으로 한 “物理學 教育”(案)을 창간키로 했으며, 학회지인 “새물리”(4회)와 “JKPS(2회)를 年6회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계적으로 저명한 物理學者를 초빙하여 第3回 李輝昭기념 물리학강좌를 개최하며 粒子, 核, 熱, 및 統計, 應用, 固体分科別로 워크샵 및 세미나, 심포지움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物理學教育 改善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증원에 따른 大學 物理學教育 改善研究會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文敎部의 지원으로 제4차 大學物理學實驗研究會를 개최하여 실험물리학교육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대학일반물리학 실험교과서」 제5판을 발행, 실험교육의 상향평준화와 표준화에 기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산실험기기 전시회 및 평가회를 실시하여 보급을 장려하며 관련학회 및 기관과의 협동사업을 개발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의 물리학자의 취업도 알선키로 했다.

## 職場 幹事실시 電子工學會 금년도에

大韓電子工學會(회장 朴麒洙)는 會員 상호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회부납부 및 징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자직장에 幹事制度를 두기로 했다.

동학회는 이외에도 회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주력할 방침이며 產學協同을 강화하기 위해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을 동원, 산업계와 활발한 접촉을 꾀할 방침이다.

또한 학회지를 年10회에 걸쳐 발간하여 회원상호간에 대화의 광장을 마련키로 했는데 年6회 발간되는 會誌에는 회원들의 수준높은 연구논문을 수록하고 잡지에는 학계와 관련사업체의 최근동향 및 관심분야의 기술해설과 회원들의 의견을 게재하여 회원상호간의 기술정보교류를 꾀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년도 학술행사로

전자공학전분야에 관한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발표회와 9개분과별 전문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5.6.10월에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 專門學術分科세미나를 개최, 컴퓨터의 이용과 디지털회로를 비롯한 光通信분야와 통신분야 및 마이크로波의 응용, 제어기기의 연구교환방식발전에 관한 새로운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텔레비전연구회에서는 칼라TV방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학술연구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전자공학회는 또 國內電子工業을 두뇌집약산업으로 지향하고 民生機器와 병행하여 산업기기간업으로 육성키위해 각종 조사사업을 실시, 기술세미나를 비롯, 計測器性能설명 및 상품소개세미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기술상담, 학술용역사업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 展覽會 개최키로 鎭山學會, 연구조사도

鎭山學의 향상 발전 및 鑛業振興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大韓鎭山學會(회장 洪準篳)는 올해에 광산학술에 관한 연구조사 및 보급사업을 비롯, 광산학술에 관한 강연회 및 전람회 개최, 광산학술에 관한 도서 및 잡지간행, 광업정책 건의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회원들의 학술연구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학술발표회는 금년에도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8. 9. 10월 3차에 걸쳐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大韓鎭山學會誌」를 年4회에 걸쳐 4,000부를 발간, 회원에게 고루 배포키로 했다.

## 相談센터 設置

### 에너지管理公團

에너지管理公團은 일반 가정의 난방 및 시공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가정에너지 상담센터」를 개설, 금년 1월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상담내용은 가정난방설비, 보온 단열재시공법, 열사용기자재의 시장정보제공, 태양의 집 추천 상담등이며 전화, 서신, 내방등의 상담을 해준다.

# 教育委 活動強化

## 纖維工学会, 81事業計劃確定

韓國纖維工学会(회장 盧鷓翼)는 올해에 纖維工学会教育委員會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對政府建議등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에 이미 人文系고등학교工業教課書 教課요목 개선에 관한 건의와 廢科된 섬유공학과 부활에 관한 건의등 각종 섬유공학교육 진작에 관한 政府府建議로 실효를 거둔바 있는 동학회는 금년에는 工業高校 教員의 자격증표 시과목 개선에 관한 건의를 추진 중이며 섬유기술사자격 시험제도가 타분야에 비해 너무 어렵다는 회원들의 여론에 따라 韓國技術檢定公団과 시험과목數 수준등을 협의의 조정중이다.

또한 文教部전담 상설 기구인 한국공학교육개발위원회의 「문제점이 있었던 大學實驗實習施設기준령 개정」에 관한 자문 요청에 따라 대학실험실습 설비기준령 개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중인 바 이미 작년 12월에 각 대학 학과장회의를 열고 섬유공학과 실험실습기준령 개정안을 검토한바 있는데 오는 2월중에 公廳會를 열고 최종작업을 마무리질 예정이다.

섬유공학회에는 또 오는 10월 纖維辭典발간을 목표로 총 24,000單語에 대한 해설 작업을 추진중인데 이 사전은 4×6배판2,000Page, 3,000部를 발간, 회원은 물론 정부주요기관 및 학계에 고루 배포하게 된다.

이밖에도 학회의 얼굴인 学会誌를 기술해설, 내용등을 강화하

는 등 체제와 지면을 보강하여 年4회 6,400部 발간할 예정이며 韓國纖維工業과 韓國의 綿紡工業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8월과 10월에 각각 개최하며 2회에 걸쳐 학술연구발표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 關係法 改正 추진

### 技術士會, '81計劃

高度의 科學技術能力을 갖고 科學技術에 대한 計劃, 調查에서부터 監理·施工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技術業務에 종사하는 技術士들로 구성된 韓國技術士會(회장 李猷卿)는 올해는 技術士의 권익향상 및 활용증대방안 모색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술사 1,800여 명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1,41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사회는 기술사 활용 및 권익향상을 위한 관계법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우선 금년에는 법전문가를 동원, 각부처의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개정시안을 작성한 다음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술사회는 또 韓·日技術交流의 일환으로 日本技術士會 회원을 초청하여 한일기술사회의를 비롯 심포지움, 세미나 등을 개최키로 하는 한편 구미각국기술사회와의 기술교류도 촉진 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회원상호간의 과학기

술에 관한 기술연구능력 확대를 위해 국내의 산업기술 연구기관 시찰도 계획중이며 회원 명부를 발간할 예정이다.

## 美·日學界와 交流

### 空調學會, 10周年 맞아

올해로 創立10주년을 맞은 空氣調和冷凍工学会(회장 鄭用厚)는 금년을 학회의 육성 발전을 위한 도약의 해로 잡고 그 어느 해보다도 의욕적이고 활기찬 사업들을 마련하고 그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창립1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기념식을 갖고 유공회원들을 표창하는 한편 저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회원단의 종합카다록集(시공, 용역, 제작분야 및 기술자료)을 발간, 배포하며, 회원명부도 발간키로 했다.

동학회는 또 空調 冷凍 분야에 관한 강연회와 衛生분야에 관한 강습회를 상반기중에 각각 실시하며 하반기 중에는 제2회 소방설비분야에 관한 강습회와 공조분야에 관한 강습회를 실시, 회원상호간의 학술정보교류는 물론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는 자체연구사업으로 空調, 冷凍, 衛生工學便覽(가칭)을 작성, 간행할 예정이며 기술기준 제정연구를 비롯 공업규격제정연구(이상 공진청), 80년대 난방방식에 관한 연구(주택공사) 등 일반학술용역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최신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美·日 空調學會와의 상호교류 방안을 마련하고 재외 과학자를 초청, 강연회도 실시할 예정이다.